



포트랜드 영락 선교회보

Spring , 2008, Volume 1

박현욱 멕시코 파송 선교사

귀하신 주님의 가족인 포트랜드 교회 선교원 여러분들과 귀한 교우님들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포트랜드에서 파송예배 드리고 교우들의 귀한 섬김을 받고 멕시코에 온지 벌써 8일이 지났습니다. 짧은시간이었지만 귀한 교회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아직도 저의 마음이 따듯합니다. 이곳에 와보니 포트랜드라는 지역이 정말 좋은 지역인것을 호호해보고 샤패 보니 알겠어요. 지금 저는 멕시코시티에 정착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먼저 장기사역을 위해서 거쳐할 장소를

말씀이 왕되는 멕시코의 젊은이들을 주옵소서

찾기 위해 다니고 있고 세폐에 등록해서 언어공부를 하려했는데 등록기간이 지나서 다음 학기나 되어야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립 어학원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통장개설, 렌탈계약, 자동차 계약등) 당장은 종교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이곳 공항에 도착해서 경험했던 그 답답함을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것 같아요. 선교사에게 몇가지 장벽이 있다고하는데 1) 서류의 장벽 2) 언어의 장벽 3) 문화의 장벽 등이 있다고 해요,,(지금 저는 1),2),3)을 동시에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앞으로 한두달 정도는 장기선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착의 시간입니다.멕시코 선교를 위한 중요한 시간인것 같습니다,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중요한 통로는 이곳에서 먼저 정착한 한인들(약 5000여명의 한인들)과 선임 선교사들의 바른 조언과 도움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말 귀한 준비된 이들을 만나도록 기도해주세요.처음에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위해서 준비된 천사들을 만나도록 기도해주세요.그리고 제가 세폐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면서 장차 성경멕시코,선교멕시코의 씨앗이 될 귀한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기도해주세요.

포트랜드에서 급하게 오느라 좀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귀한 나눔과 교제를 많이 하지 못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계속 함께 선교의 전후방현장에서 중보하고 선교하면서 주님께서 귀한 포트랜드교회와 멕시코 선교를 주님이 위해 기도해주세요.후에 좀 더 시간이 지나간 뒤에 사역 돌아보면서 후회없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귀한 포트랜드 영락교회와 귀한 여러분과 진목사님 내외분을 축복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현장에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있어 항상 한마음으로 귀한 코이노니아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포트랜드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건축을 위해서도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저의 기도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주님의 사랑을 보냅니다. 성경멕시코, 선교멕시코를 소망하며……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송은용 파송 선교사(우크라이나)

휴대폰 컬러링이 울리기에 받아보니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5월 첫 주일을 지낸 다음날인 월요일 아침 일찍 저희 가족은 열차에 몸을 싣고 사역지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6시30분 출발 열차편으로 하리코프로, 저희 가족은 7시 출발 열차편으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중에 아내가 제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기 전, 저는 테이블위에 성경과 우크라이나 지도를 펼쳐 놓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대표적인 강은 드네프로(Dnipro)강으로서,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리면서 우크라이나와 키예프를 동서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펼쳐 읽으며 목상하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1:1-9의 말씀이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진격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진 본문입니다..

통화를 하면서 문득 지도를 보니, 가족은 강을 따라 남부로 내려가는 중이고, 저는 드네프로 강을 건너 동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치 제가 현대판 여호수아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있는 듯한 설렘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온 이래 지금까지 키예프를 중심으로 드네프로강 서안에서만 선교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금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드네프로 강 동안으로도 사역을 확장시켜 나아가기를 지시/인도하고 계심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갑작스레 저에게 특탄 ‘뇌경색’으로 지난 2년간은 요양 겸 준비 기간으로 보내왔습니다. 하리코프(Kharkov)는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인구 200만)로서, 구 소련시절 우크라이나의 수도였고, 키예프에서 동북 방향으로 480Km 거리에 위치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제 2차 선교여행 중 특히 빌리보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됨으로 사역에의 많은 도움을 받고 또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저 역시 하리코프의 첫 방문에서, ‘류드밀라’라는 믿음의 자매를 만나 앞으로의 사역에 큰 협력을 얻을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류드밀라, <김 류드밀라 안토노브나>(55세)는 하리코프 고려인 교회 집사로서, 181정수리 학교의 교장이자 하리코프 고려 문화협회 회장입니다. 고려인 남편과의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오래전 남편과 장남을 교통사고로 사별하고 우크라이나 남편과 재혼, 최근 결혼한 작은 아들은 동유럽 접경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 하리코프 시의원을 역임한 여동생의 남편(제부) ‘신 빅토르’ 목사는 현재 하리코프 고려인 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류드밀라가 교장을 맡고있는 <181정수리 학교; 첨부사진 참고>는 공립학교로서, 하리코프 고려인들이 협력하여 1998년에 설립한 한국어 특화학교입니다. 전에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하여 학교로 쓰다보니 규모가 작아 현재 재학생은 144명, 교사는 23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이지만, 공교육을 통한 선교에의 전망만큼은 그 어떤 사역보다 그 가능성이 넓게 열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인류에게 공헌하고 사회를 변화 시키는 것은, 수백 수천의 인물이 아닌, 한 인재에 의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류드밀라 교장과는 181정수리학교를 통한 <교육사역>에 함께 동역하기로 의기투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 빅토르 목사와는 그의 소유 건물인 고려인회관(고려인교회; 첨부사진 참고)내에서 <사역자 훈련원 사역>을 함께 동역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드네프로 강 동안으로의 선교확장을 위하여 기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81 정수리 학교



하리코프 고려문화센터